

# 국내시각디자이너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대학졸업자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ccupational Awareness by the Visual Designers in Korea

-Focused on college graduated Designer's Level-

김 광 현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목 차〉

-논문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조사범위

2. 디자인업(業)에 대한 조사

3. 현 직장에 대한 반응

4. 디자이너의 보수

5. 국제성에 대한 인식

6. 문제점 분석

7. 결론

<ABSTRACT>

The formation of design in Korea and the consensus on its necessity began in 1960's. Industrial design started to be realistically recognized and 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dustrial & Packaging Design Center. Later on, the industrialization in 1970's has contributed to industrial design campaigns. Now industrial design in Korea shows almost 50-year-long history respectively, and the nation's GNP soars over \$ 10,000.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motion of effective advances in graphic design, which is said to be most essential in the industry.

For this, graphic designer's view on their occupation and the world with their anticipation towards further development of graphic design has been discussed.

〈논문요약〉

한국디자인의 실제적 형성과 디자인의 시대적 필요성의 공감은 1960년대부터라고 보겠다. 즉, 한국 산업디자인에 대한 본격적 이해와 형성은 1976년, 한국디자인 포장센터(현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공업화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산업디자인이 이땅에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지 약 50년 즉, 1947년 이후 지금 국민소득 1만불을 상회하고 있는 이때, 산업디자인 범주중에서도 가장 그 효용도와 활용성이 크다는 시각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시각디자이너들의 현재의 직업의식과 세계관을 조사하여 보았다. 그들이 현재의 여러 환경변화를 원하고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의식이 희박함을 이해하게 되어 한국 시각디자인 발전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도록 일깨워 준다.

**Keywords**

Occupational Awareness, Identity of Designers, Professional Designer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산업디자인이 도안, 응용미술로 시작된지 반세기를 넘은 이때, 디자인의 긴요성과 디자이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조사되고 연구되었다.

첫째, 산업디자인의 범주에서 가장 활용성과 감각성을 갖는 시각디자인의 바른 평가.

둘째, 현장과 시각디자이너와의 유대성 내지 결속성의 심도조사.

셋째, 시각디자이너가 디자인개발시 필수적인 창의성 및 자율성 기회의 부여량 파악.

넷째, 시각디자이너의 적정급여 수령과 그들의 지위 향상기회 확대의 유무.

다섯째, 남,여 디자이너의 동시 조사로 성(性)의 차별화 유무 파악.

여섯째, 시각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 자긍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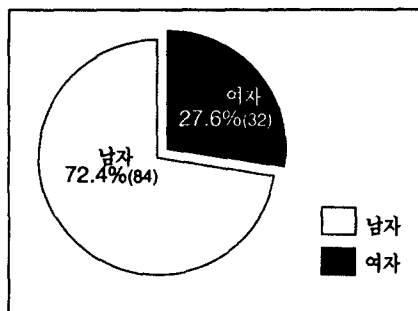
일곱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화 의지의 유무 조사.

## 1-2. 조사범위

첫째, 시각디자이너(편집, 그래픽디자인, 광고, 포장디자인, 기타)를 무작위대상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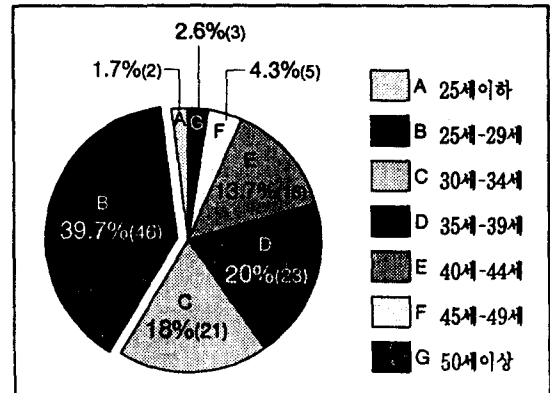
둘째, 총 설문배포는 디자이너 200명중 회수분116명(58%) 미회수분 84명(42%)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총 회수분중 남성84명(72.4%), 여성 32명(27.6%)이 설문에 응답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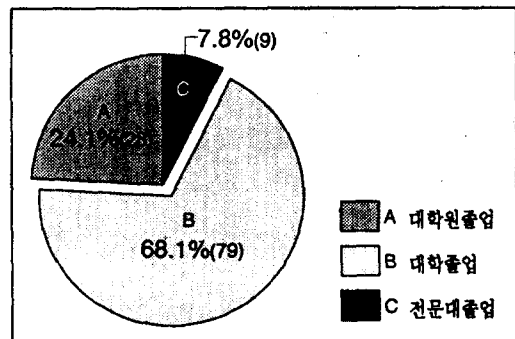
<그림 1>

넷째, 총 연령 분포<그림 2>는 남,여 25세-29세가 가장 많았다. 총 인원(116명)중에서 39.7%(46명)가 이 연령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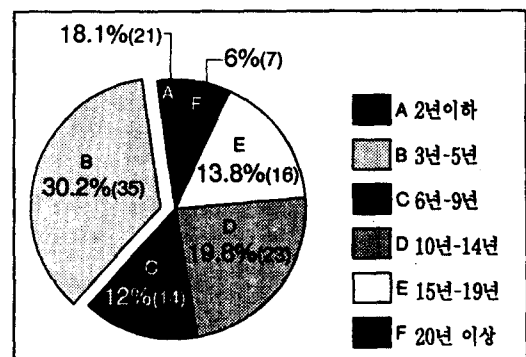
<그림 2>

다섯째, 총 학력 분포<그림 3>는 남,여 모두 대학졸업이 79명(68.1%)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졸업도 28명(24.1%)이며, 총 116명이 전원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자들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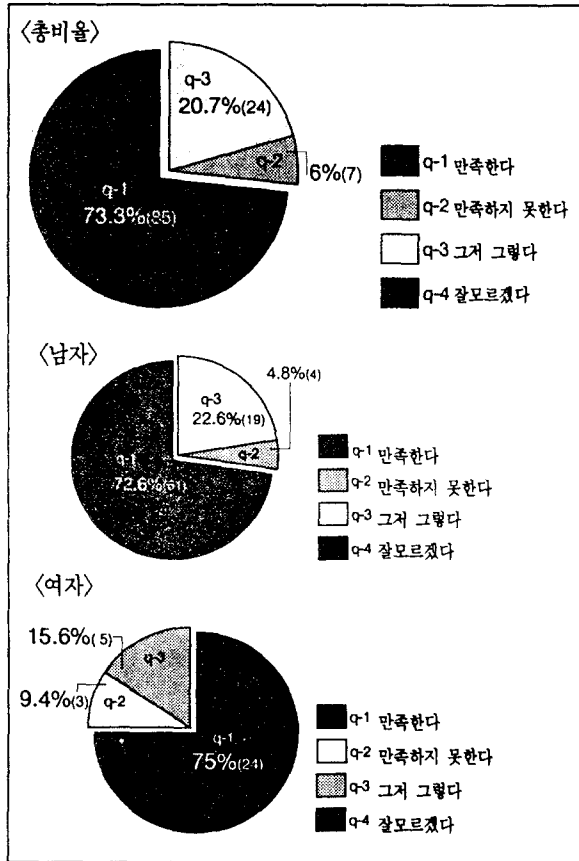
여섯째, 총 경력<그림 4>은 5년이하가 56명(48.3%), 6년이상 19년 이하가 53명(45.6%)으로, 특히 경력2년 이하의 여성디자이너는 53.1%로 응답했다.



<그림 4>

## 2. 디자인 업(業)에 대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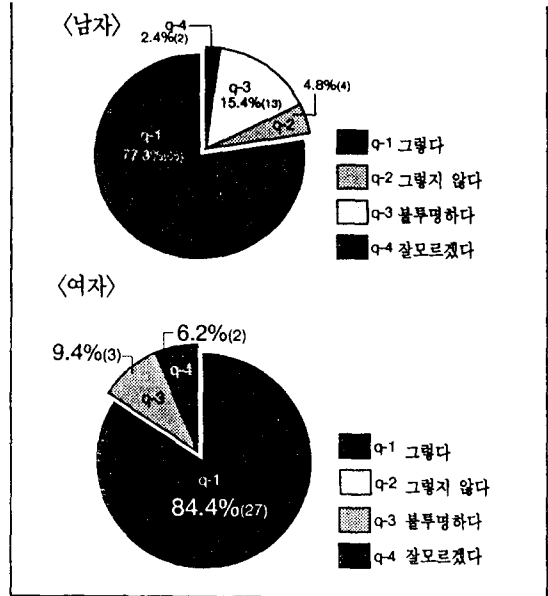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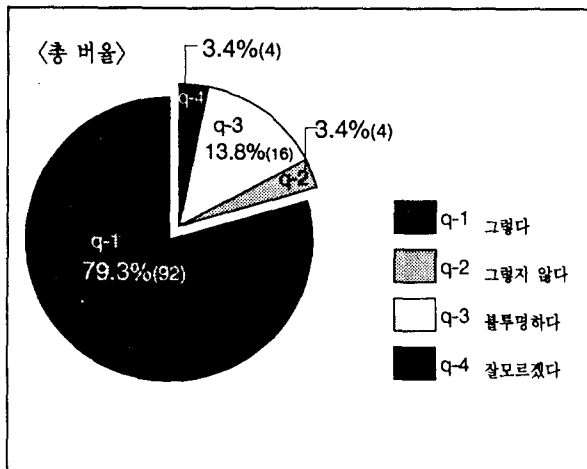
현재 디자인 업(業)에 종사하는데 대한 만족도는 대다수 (73.3%)가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그림 5>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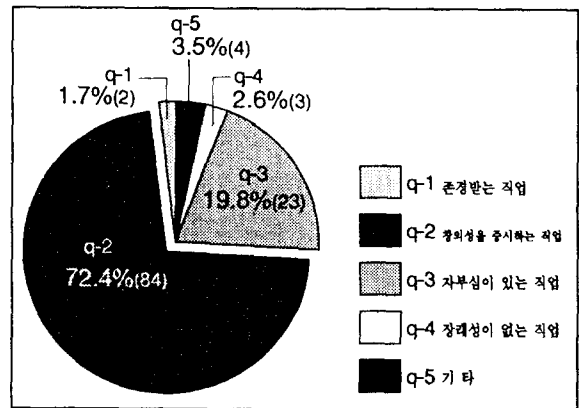
한편, 시각디자인분야가 장래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 (79.3%)가 긍정적 대답을 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많이 직업의 장래성에 긍정적 대답(84.4%)을 했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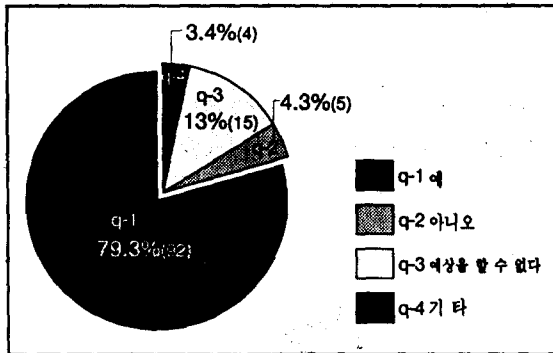
<그림 6>

디자이너의 직업관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분야(72.4%)로 가장 높고, 자부심을 갖는 직업(19.8%)으로 나타나 디자인은 창의성을 중요시함을 보여주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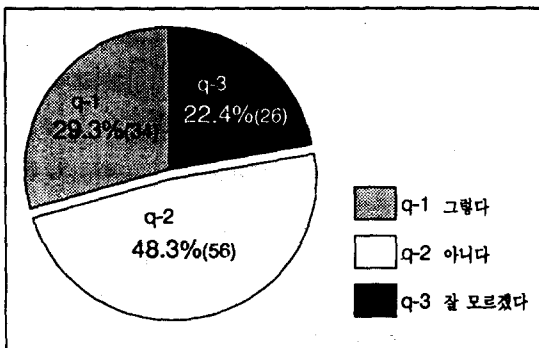


<그림 7>

시각디자인이 미래전망이 있는 분야인가에 대하여 79.3%<그림 8>가,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9.3%<그림 8>로 현 직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48.3%) 있으며 <그림 9>, 특히 여성의 53.1%가 남성보다 더 불만족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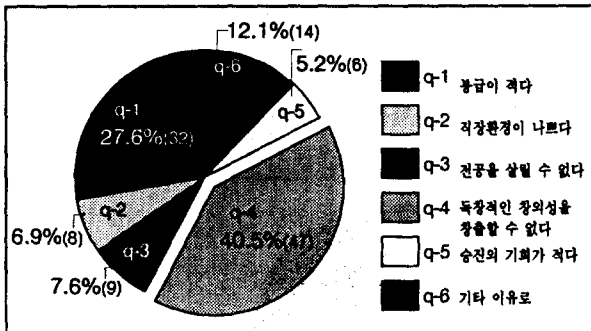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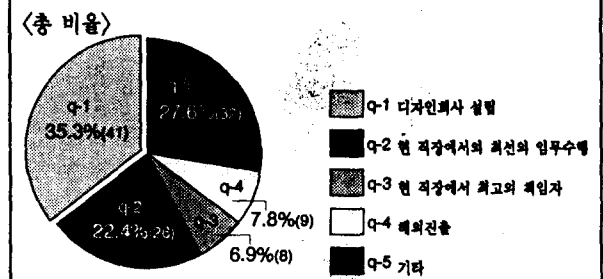
〈그림 9〉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독창적이고 창의성 창출기회 최소(40.5%), 봉급이 적음(27.6%)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남성들의 38%가 창의성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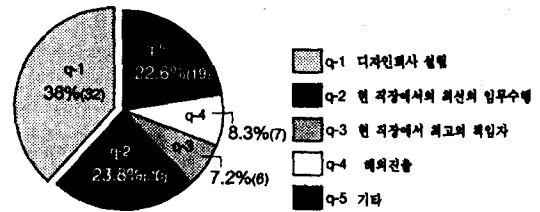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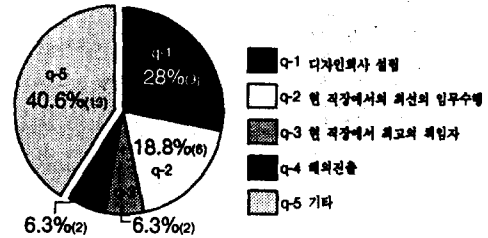
디자이너로서 궁극적 목표를 묻는 문항에서는 디자인 회사 설립(35.3%), 현 직장에서의 최선의 임무수행(22.4%)으로 응답하였고 〈그림 11〉,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이에대한 응답율이 더 컸다.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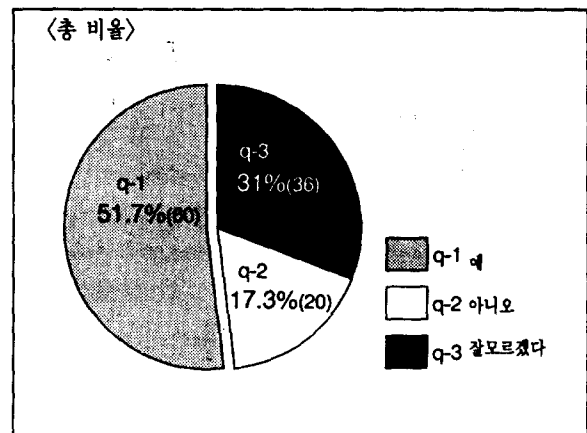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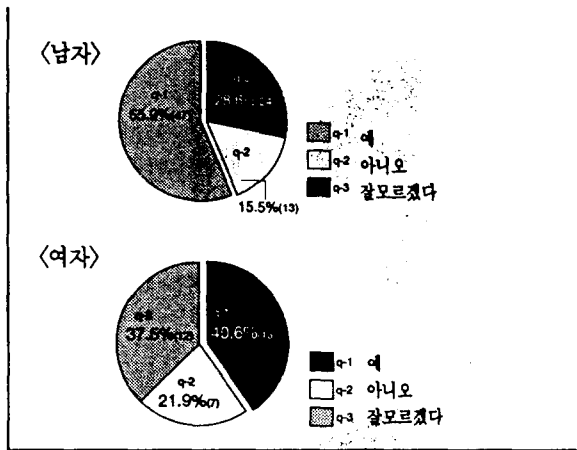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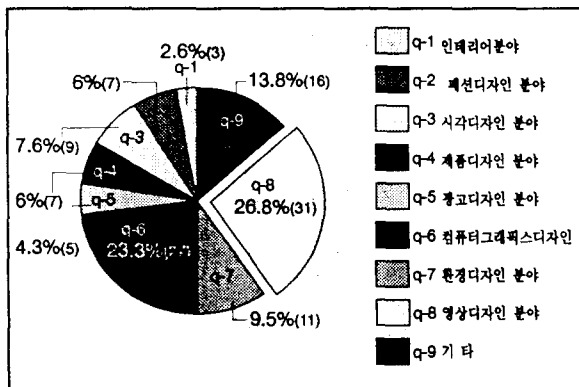
〈그림 11〉

디자이너의 직업의식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어 직업을 2세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응답이 51.7%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55.9%로 높았으며 〈그림 12〉, 권하고 싶은 분야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인 23.3%, 영상디자인 26.8%로 현 정보시대에 활용성이 많은 분야에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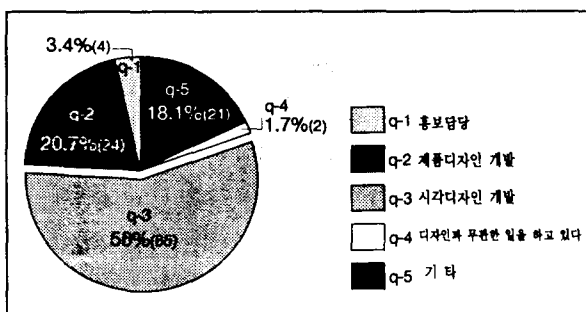
〈그림 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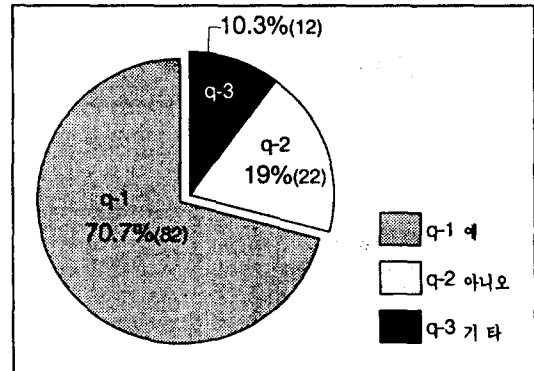
### 3. 현 직장에 대한 반응

시각디자인 전공자로서 직장의 디자인부서에서 시각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은 남,여 56%인 반면 시각디자인과 무관한 일을 하는 디자이너도 40%를 넘어 반드시 본인전공과 일치하지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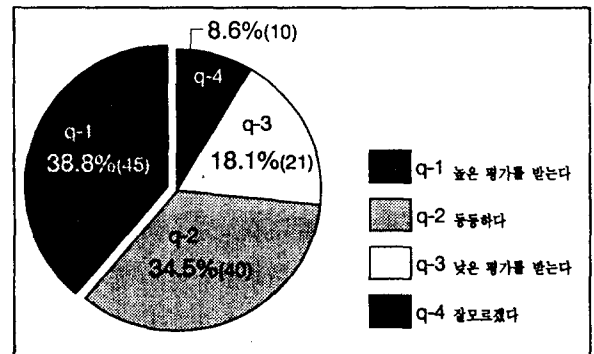


〈그림 14〉

대부분 많은 직장에는 디자인실(부)이 분리되어 있어 (70.7%) 작업환경이나 또는 책임부서로서의 조건은 갖추어진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그림 15〉, 디자이너들이 타부서 직원과 비교해서 받는 평가는 73.3%가 긍정적이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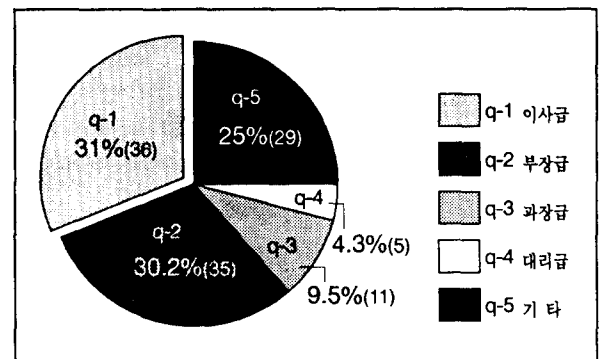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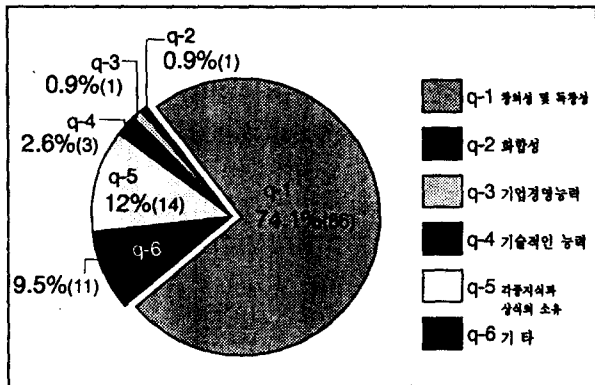
〈그림 16〉

회사내 디자이너의 최고직급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사급 (31%)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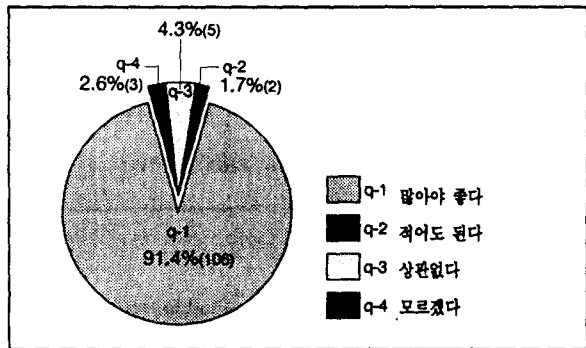


〈그림 17〉

회사내에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창의성 및 독창성 (74.1%)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그림 18>, 디자인개발을 위해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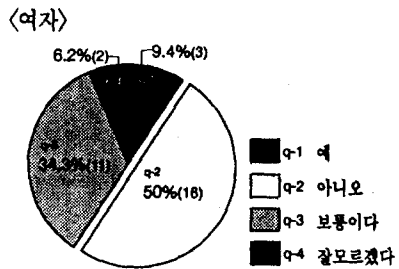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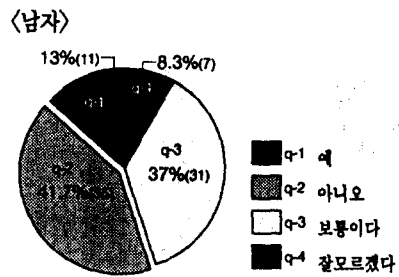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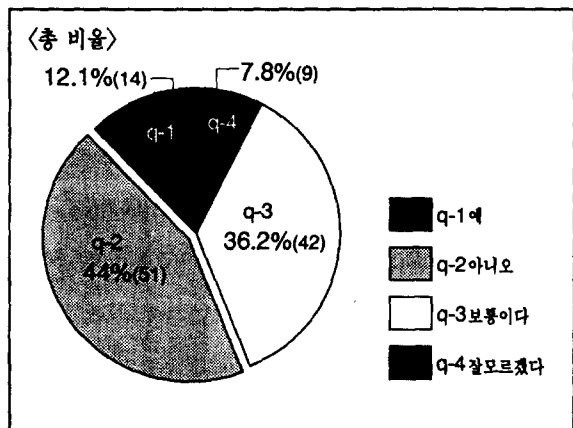
<그림 18>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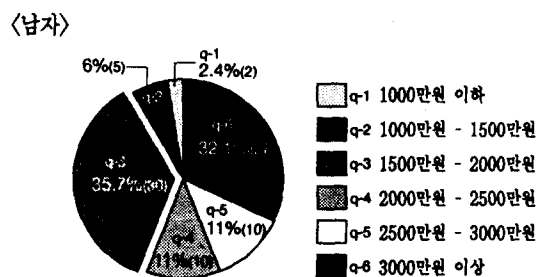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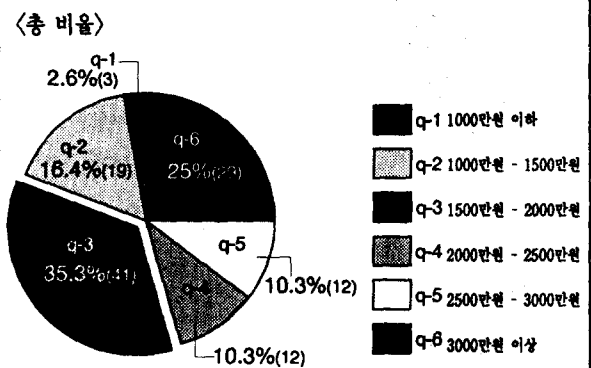
#### 4. 디자이너의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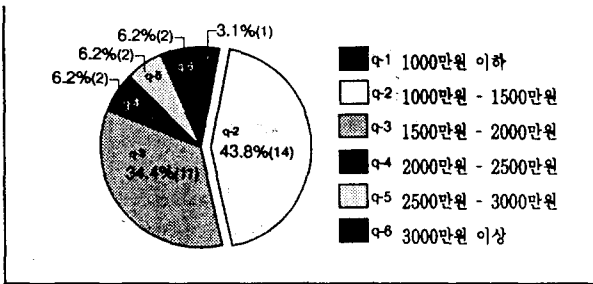
현 소속해있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적정수준인가의 질문에 44%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고, 12.1%가 긍정적 대담을 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50%가 현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20>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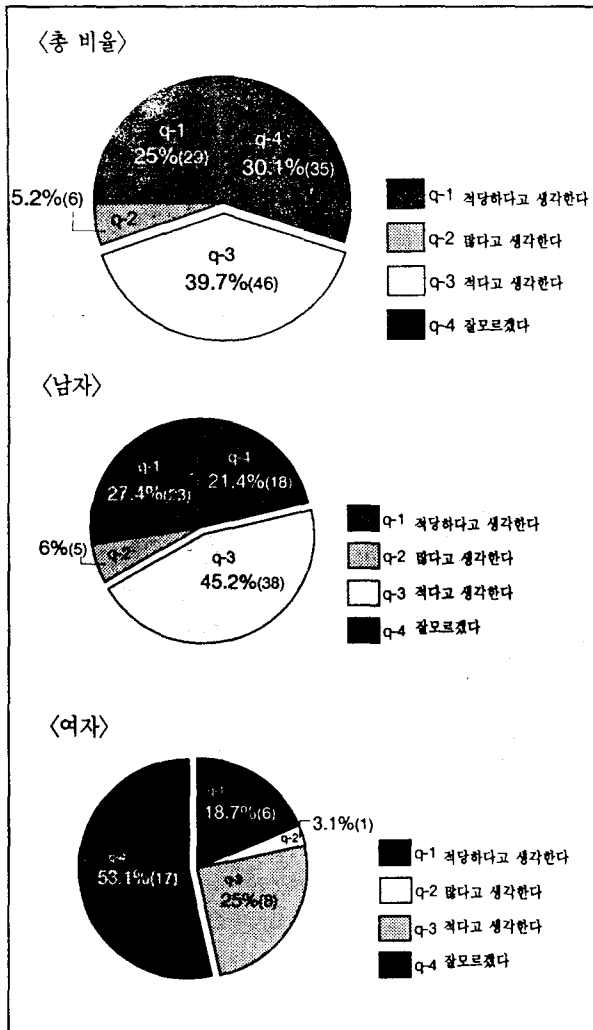
현재 받는 보수(년봉과 제반수당 포함)는 <그림 21>에서 보여주듯 년봉 1500만원 - 2000만원(월 평균 125만원 - 165만원)선이 35.3%로 가장많은 편이고 년봉 3000만원 이상(월 250만원)수령하는 디자이너도 25%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보수가 월등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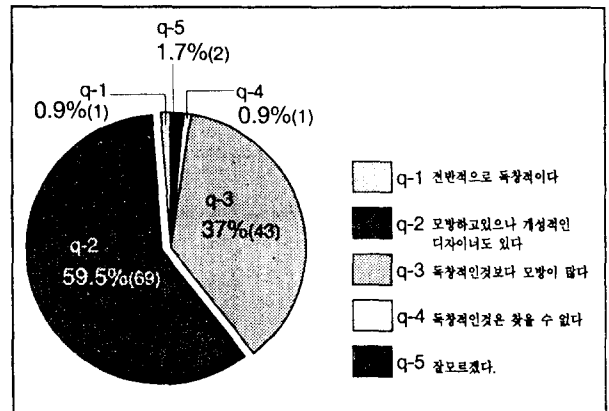
특히 Free Lancer의 디자인료에 대한 응답에서는 현 수령하는 Fee가 적다고 생각하며(39.7%), 특히 남성이 여성들 보다 Free Lancer가 많아서인지 현재의 Fee에 더 불만을 표시 하였다.<그림 22>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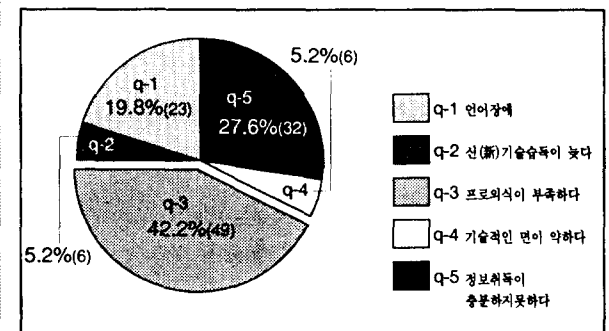
## 5. 국제성에 대한 인식

외국디자이너에 비해 한국디자이너의 Identity와 관련한 디자인 개발과정의 비교에서 한국디자이너는 외국의 것을 모방하고 있으나 개성적인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음이 59.5%로, 또 독창적인것보다 모방이 많다가 37%로 대체로 외국디자인의 모방이나 응용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그림 23>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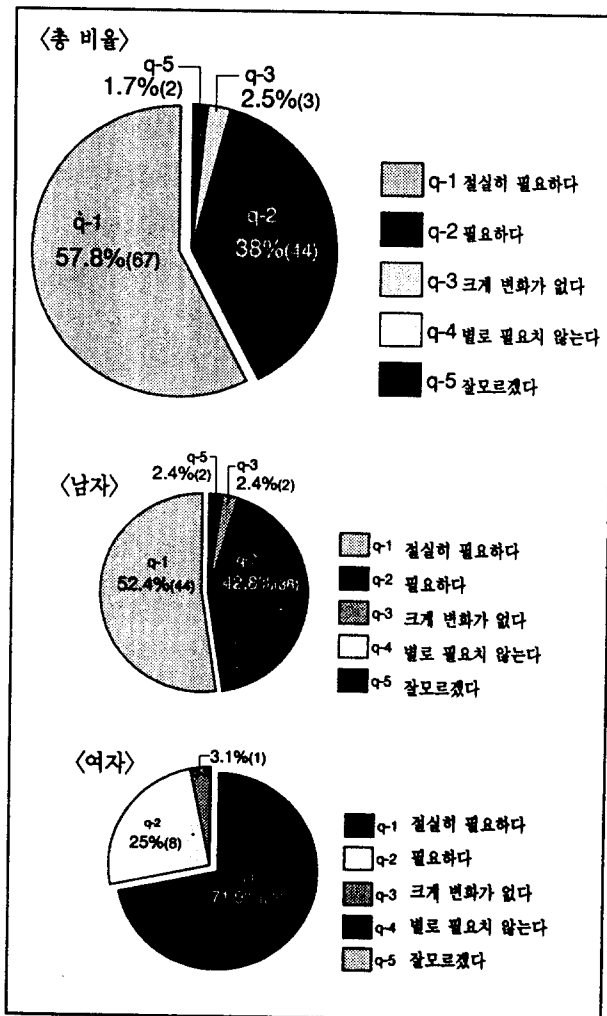
또한 외국디자이너와 국내디자이너를 비교하여 우리의 단점을 찾는 물음에서 '프로의식 결핍'이 42.2%, 정보취득의 불충분' 27.6%로 나타났다.<그림 24>



<그림 24>

세계화, 국제화 방향의 시장상황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95.8%가 그 필요성에 응답하였고, 절실히 필요함에 있어서 여성의 71.9%가 남성의 52.4%보다 훨씬 상회함을 나타냈다.<그림 25>





〈그림 25〉

## 6. 문제점 분석

국내 시각디자이너 직장 경력은 꽤 짧은 편이다. 본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53.1%가 2년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78.1%가 5년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50%가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있는 편으로 직장에서의 남성선도도가 아직도 높은 편이고, 여성의 직업참여가 장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디자이너가 속해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창의성 창출기회가 희박'하고 또 '보수에 불만족'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각디자이너 전공자 중 이번 조사자중 40%가 직장에서 그들의 전공이 아닌 타 분야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받는 보수는 응답자의 44%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50%가 현재 수령하는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남,여 성별과 보수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ree Lancer의 디자인료에 대한 응답역시 현재받는 Fee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외국디자이너에 비해 한국디자이너의 약점으로는 창의적 개발보다 외국의 것을 모방하고 있는 편이 응답자의 약 40%로 나타났으며, 또 외국디자이너에 비해 국내디자이너는 '프로의식 결핍'과 '정보취득의 불충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이 1995년 '산업디자인 교육 제도 조사 연구보고서' 에서도 창의성 부족은 한국의 디자인 관련교육이 선진국과 비교시 뒤떨어지는 분야로도 조사되었다.

세계화, 국제화으로의 방향을 위해 시각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자의 95.8%가 수긍하였고 여성의 71.9%가 남성의 52.4%보다 훨씬 상회함을 나타냈다.

## 7. 결론

우리나라에 산업디자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그 활용도가 확대되기 시작한지 50여년, 시각디자인이 디자인의 큰 주류로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해마다 수많은 시각디자이너가 대학으로부터 나와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이번조사를 통해서 시각디자이너의 위상은 크게 격상되었고 또 그들의 자긍심은 크게 고취되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시각디자이너의 더 큰 과제는 무엇보다 창의성을 갖는 창작의 길을 열어야 할것이고, 또 세계화를 위한 한국디자인의 Identity를 찾는 길이어야 할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의 시각디자이너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야 세계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광현, 한국패키지디자인의 개발전략, 조형사, 1995.
- Drucker F. Peter, The New Realities, 새로운 현실, 김용국 역, 시사영어사, 1990.
- 최정호, 김형국,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나남, 1989.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 교육제도조사 연구보고서, 1995.